■ 강진군수

정치변수 많아 자천타천 6명 거론

강진원 강진군수 / 김근진 강진농협조합장 / 서채원 전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종헌 전 전남도의원 / 차봉근 전 도의회 의장 / 황호용 전 전남도의원

강진군수 후보군으로는 다수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후보군들은 국회 정당공천 폐지안 처리와 안철수 신당 출현 등의 향후 정치 변수 때문에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각종 정치 변수 등을 저울질하며 밑바닥 정서를 살피고 있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진원(55) 현 강진군수의 재선 도전에 맞서는 후보군으로는 서채원(53)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근진(59) 강진농협조합장, 차봉근(67) 전 전남도의회 의장, 황호용(69)·이종헌 전 전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1월 명퇴설이 나도는 장경록(57) 강진읍장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강 군수는 원만하게 군정을 이끌며 무난한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주홍 국회의원과도 당정관계를 원활하게 꾸려나가며 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강진군수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강 군수에 패한 서채원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의 향후 정치 행보도 주목된다.

탄탄한 농협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김 조합장은 5선 의원인 최근 민주당 각종 행사에도 잦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차례 군수 도전에 실패한 차봉근 전 전남도의장(5·6대)은 현재 민주당 활동과 교회장로로 활동을 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황호용 전 전남도의원(7, 8대)과 이종헌 전 전남도의원(7, 8대)도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완도군수

지역정치인 vs 관료 출신 대결

김 신 전 군의원 / 김인철 전 국회전문위원 / 김홍배 전 광주고검 국장 / 박현호 전 완도부군수

서정창 전남도의원 / 송주호 도의회 부의장 / 신우철 전 진도부군수

김종식 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차기 완도군수 선거가 '무주공산' 이 되면서 벌써 7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이 거론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관료 출신 대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의 대결이 예상된다.

현재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역 정치인 출신 후보군으로는 김 신(50) 전 군의원과 서정창(59) 전남도의원, 송주호(58)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이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김인철(62)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1급·차관보급), 김홍배(63) 전 광주고검 사무국장, 박현호(63) 전 완도부군수, 신우철(60) 전 진도 부군수 등이 나서고 있다.

김 신 전 군의원은 전남 청년회의소(JC) 회장과 전남 서부 어류양식 협회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도의원인 송 부의장과 두 차례 도의원을 배지를 단 서 도의원도 의정활동에 치중하면서 지역구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노화읍 출신인 김 전문위원은 20여년 간의 국회 및 입법 활동을 해온 경험, 이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 경험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고,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김 전 국장은 민주당 전남도당 법률지원 특위위원장을 맡아 정당 활동과 함께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민들과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신 전 부군수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과 완도·진도·고창 어촌지도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해양·수산 전문가를 내세우며 바닥 민심을 다져가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 해남군수

현 군수-전직 도의원 경쟁 볼만

박철환 해남군수 / 김병욱 전 전남도의원 /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 / 김정현 초당대 교수 / 이석재 전 전남도의원

차기 해남군수 선거전은 재선 도전장을 내민 박철환(56) 군수에 맞서 풀뿌리 의정활동 경험을 앞세운 전직 전남도의원들의 도전이 거셀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김석원(56)·김병욱(51)·이석재(68) 전 전남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김정현(62) 초당대 외래교수가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박 군수는 무난한 군 행정과 함께 지역민과의 소통을 잘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선 군의원과 해남군 농업경영인회 의장 등을 지내며 다져온 지지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

군정을 이끌면서 화력발전소 무산, 막말 시비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석원 전 도의원의 경우 왕성한 의정활동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왔고, 해남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표밭 갈이에 나서고 있다.

후보 중 가장 젊은 김병욱 전 도의원도 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정당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그동안 닦아온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차기 군수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석재 전 도의원 또한 지역에서 3선의 전남도의원을 지낸 관록과 경험을 앞세우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전 국방부 이사관을 지낸 김정현 초당대 외래교수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지역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수

민주당 경선 최대 변수될 듯

이동진 진도군수 / 김희수 전 진도군 과장 / 박연수 전 진도군수 / 장 일 전남도의원

차기 진도군수 선거는 이동진(68) 현 군수의 재선 도전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맞서는 후보군으로는 김희수(59) 전 진도군 과장, 박연수(65) 전 군수와 장일(56) 전남도의회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3~4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더 거론되고 있지만, 지지도 면에서 사실상 진도군수 선거는 현재 4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거친 전문 경영인인 이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낙후된 진도의 가치와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재선을 통해 더 나은 진도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재선 가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민선 5기 선거에서 300여표의 차이로 현 이동진 군수에게 석패한 김희수 전 과장은 공무원시절 일선 면장을 지내며 다져온 기본 지지층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지난 선거 패배 이후 지역에서 더욱 기반을 다지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박연수 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 이후 정치적 재기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 특성을 어떻게 극복할 지 주목된다.

또 전남도의회 재선인 장일 의원은 중장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풍부한 도의회 경험과 열성적인 지지층이 많은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민주당 내 경선룰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도전장을 내던진다면 상당한 파급력도 예상된다.

3~4명의 후보 이외에도 새로운 인물이나 무소속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 영암군수

3선 도전 맞서 젊은 후보들 도전장

김일태 영암군수 / 강우석 전남도의원 / 김재원 세한대 교수 / 전동평 전 전남도의원 / 최영열 도 종합민원실장

김 일 태 (69) 현 군수의 3선 도전에 맞서 차기 군수를 넘보는 젊은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김 군수는 지역민에게 여전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선 6기 사업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민선 5기 부진했던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선거 전략도 마련하면서 3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박준영 전남지사의 정무직 좌장격인 최영열(50)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이 박 지사의 복심(腹心)과 영암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삼호읍을 기반으로, 현 군수와의 '2파전 전략'을 구상하며 김 군수의 3선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최 실장은 거점 산업 집중 육성과 월출산, F1을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우석(59) 전남도의원은 지방자치 경험 등을 앞세워 영암읍 등에 얼굴을 알리는 등 조용한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축협조합장을 거쳐 전남도의원 재선을 한 강 의원은 "몸을 낮춰 군민의 의견을 듣고, 철저한 봉사와 청렴한 마음 가짐으로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민원실장을 지낸 김재원(56) 세한대 교수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못다 한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밖에 전동평(53) 전 전남도의원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50대 후보들의 득표율 경쟁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무안군수

작년 재보선 '리턴매치' 양상

김철주 무안군수 / 김호산 고구마사업단회장 / 나상옥 목포신안조합장

무안군수 선거전은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리턴매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철주(56) 현 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호산(51) 황토고구마 사업단 회장과 나상옥(62)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김 군수와 김 회장은 지난해 4·11 보궐선거에서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리턴매치가 주목된다.

약사 출신인 김 군수는 7·8대 재선 전남도의원을 지내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행정·의정 경험활동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무안군수로 당선됐다.

김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 지역내 민심 탐방을 통한 지역민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전남개발공사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군수의 대항마로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김 회장이 손꼽히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11 무안군수 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서 김철주 현 군수와 맞붙었지만, 고배를 마셨었다.

당시 보궐선거에서 김철주 군수가 득표율 41%, 김 회장이 28%를 득표했다. 진보정당이 3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었다.

'성공한 젊은 CEO'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는 김 회장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신당 후보 또는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차기 무안군수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바람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선의 조합장을 지낸 나상옥 축협조합장도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혀가며 조합 내 조직 및 지역 조직을 최대한 가동, 차기 군수 선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영광군수

현 군수 맞서 후보간 합종연횡 예상

정기호 영광군수 / 김규현 영광군 번영회장 / 나승만 영광군의회 의장 / 이동권 전남도의원 / 정규련 변호사

차기 영광군수 선거는 3선 도전이 확실한 정기호(59) 현 군수 이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들이 없어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 군수의 3선 성공 여부와 함께 정 군수의 3선 가도를 저지할 어떤 인물이 나타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재선인 정 군수의 조직력이 너무 탄탄해 다른 후보들이 향후 정치 변화를 관망하면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뿐 직접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 원만한 군정수행과 탁월한 인사처리 능력 등이 성과로 꼽히면서 지역민들의 지지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군들은 정 군수와의 다자대결은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일 대일 대결시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군수 후보군으로는 김규현(64) 영광군 번영회 회장, 나승만(65) 영광군의회 의장, 이동권(50) 전남도의회 의원, 정규련(49)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 사이에서는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인사들은 정 군수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출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김규현 회장은 지역의 폭넓은 인맥이 강점이고, 초선인 나승만 의장은 기초·광역의회와 군수 출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권 도의원의 출마 여부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규련 변호사도 군수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무엇보다 정 군수와의 일대일 대결 구도로 진행된다면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후보들간 합종연횡도 예상된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 함평군수

재선 도전 현 군수 대항마 관심

안병호 함평군수 / 나병기 전 전남도의원 /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 / 이윤성 전 함평읍장

재선에 도전하는 안병호(65) 현 군수에 맞서 3명의 후보들이 벌써 도전장을 내밀고 나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축협조합장 3선을 한 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된 안병호 현 군수는 축산농가의 지지기반과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애초 동함평 산단의 검찰 수사로 지역 내부가 시끌거려 내년 지방선거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검찰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서 안 군수의 재선 도전에 힘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안 군수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로는 나병기(57) 전 전남도의원과 노두근(59) 전 강진부군수, 이윤성(59) 전 함평읍장이 있다.

함평군 의회 의장을 4년 동안 역임한 뒤 전남도의원을 지낸 나 전 의원은 최근 출마의 사를 표명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나 전 도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성호 전 도의원과 단일화를 위해 출마의 뜻을 접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역을 누비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노 전 부군수와 이 전 읍장은 조기에 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면 출신인 노 전 강진부군수는 지방자치 행정과 전남도의회 사무처의 근무한 경험을 앞세워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등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다.

구례군 기획실장을 거친 이 전 읍장도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과 접촉을 늘리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옥부호 전남도의원도 출마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 신안군수

박우량 군수 3선 누가 저지할까?

박우량 신안군수 / 고길호 전 신안군수 / 남상창 전 진도부군수 / 박석배 민주 지역부위원장 / 임흥빈 전남도의원

차기 신안군수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박우량 현 군수의 3선 성공 여부와 함께 이를 제지할 후보들의 거센 도전이다.

3선에 도전하는 박우량 군수(58)에 맞서 임흥빈(53) 현 전남도의회 의원, 고길호(68) 전 신안군수, 남상창(60) 전 진도부군수, 박석배(50) 민주통합당 무안·신안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강점이 있는 박우량 군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신안을 만들어 가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며 3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남상창 전 부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인간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달성으로 신안 공동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밝히며 바닥 민심을 살피고 있다.

지난 2010년 광복절 특별복권조치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고길호 전 신안군수의 행보도 관심사다.

지난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고 전 군수는 재경 신안향우회 행사에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 처리됐었다.

박석배 부위원장은 명품소금의 세계화와 농산물의 특성화, 집단화 등으로 농·수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경쟁력을 높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8·9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을 다져온 임흥빈 의원은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과 수년 전부터 다져온 조직과 바닥 민심이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